

## “19만이 해고자 마음으로 함께 싸우자”

### 조양·한울 부당집단해고 분쇄 결의대회 ... “기경도 엄벌 받을 때까지 투쟁”

금속노조가 노동부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아래 ‘경북지노위’)에 자본 편향 판정을 중단하고, 조양·한울 조합원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노위가 26일 심문회의에서 다시 노동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파 판정을 한다면, 지부는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2월 22일 오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조양·한울분회 노조파괴 부당집단해고 분쇄, 민주노조 사수, 경북지노위 부당해고 인정 판결 촉구 금속노조 대구경북권 결의대회’ 를 열었다.

북직투쟁은 작은 사업장에 왜 노동조합이 절실하게 필요한지 보여주는 투쟁이다” 라며 “19만 금속노조가 함께 해고자 노동자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투쟁하자” 라고 호소했다.

손기백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장은 투쟁사에서 “일확천금을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 단지 ‘이 새끼, 저 새끼’ 가 아니라 ‘누구 씨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노동자로서 정중히 대우받길 원해서였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금속노조는 결의대회를 마친 후 “노조 탄압 집단해고 기경도를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항의서한’ 을 전달했다.

조양·한울기공은 대구 달성군 테크노산업단지에서 농기계 핵심부품인 유압기어펌프를 제조해 대동 등에 공급하는 부품업체다. 조양한울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8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2023년 조양한울은 임금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부당해고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회유 협박하는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경북지노위는 지난 1월 18일 손기백 분회장에 대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가 자본 편향 판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분회 조합원 열한 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2월 26일 연다.

손기백 분회장은 “조양한울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면서 “노조 파괴 범죄자 기경도가 엄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 라고 결의를 밝혔다.

조양한울분회 조합원들은 사측의 교섭 반복, 부당노동행위, 인격 말살, 민주노조 죽이기에 맞서 정당한 파업투쟁을 벌이다 현장에 복귀했으나, 사측은 곧바로 조합원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조양한울의 정리해고는 금속노조 조합원 표적해고다” 라면서 “해고의 칼을 휘두르는 기경도 대표이사를 절대로 가만두면 안 된다” 라고 규탄했다.

장세은 금속노조 대구지부장은